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삭제' 연루 공무원 70명 뿐일까

'미흡한' 자체 조사 결과 발표 … 무단 면제 228건 중 140건 불법 삭제

퇴직공무원 등 다수 포함 '특혜 관행' 가능성 높은데
조사 기간·대상 확대 않고 '총리실 파악 자료'만 조사
서 청장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후 합당한 조치할 것"

광주시 서구에서 불거진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무단 삭제' 사건〈광주일보 12월 15일자 7면〉과 관련해 70명의 공무원이 연루돼 4만원 짜리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구의원 2명, 5급 공무원 8명, 국장급(4급)을 포함한 퇴직공무원도 1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특혜성 면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23일 이달 중순 불거진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위해 확보해간 2018년부터 올 11월 18일까지의 과태료 무단 면제 기록 228건에 가운데, 140건의 자료가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 삭제됐다고 밝혔다.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현직 구의원 2명(3건), 5급 공무원 8명(10건), 퇴직공무원 14명(18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직·기간제 16명(20건) 등 총 100명으로 파악됐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우리 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무단 면제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무척이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죄했다.

서 청장은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스템상 과태료 면제 권한을 가진 인력을 기존 11명(공무원 2명·공무직 11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면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과태료 면제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 서구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서구는 국무조정실에서 확보해간 자료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쳤다.

과거에도 이 같은 특혜가 관행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데다, 직접 무단 면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과태료 무단 삭제를 요구하는 청탁이 이뤄졌는 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대석 청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이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시상식 후 김효진 동화 부문 당선자, 이서영 시 부문 당선자, 이홍재 광주일보 주필, 김정숙 소설 부문 당선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당선작은 2021년 1월 1일자 신년호에 게재된다. /김진수 기자 jeans@

'신인 작가 등용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단편소설·시·동화 3개 부문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23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들과 가족, 광일신춘문학회 회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김정숙(60)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이서영(51)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김효진(40)씨에게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이홍재 주필 겸 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실시해온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라며 "그동안 배출한 작가들은 중앙 문단과 지역 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일보는 신문 문학란과 문화전문매거진 '예향'을 통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책 출간 소식과 문단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춘문예 지원은 물론 호남의 문학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모두 2123편의 작품이 투고됐다. 시 1715편, 소설 213편, 동화 195편으로 예년 수준의 응모 현황을 보였다. 투고작 가운데는 코로나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어두운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실업, 경제난, 죽음, 폭력 등 현실의 고단함과 피폐함, 부조리를 다룬 내용이 많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학교 민주주의 종합지수' 80.6점

〈100점 만점〉

초·중·고 223곳 2만6000명 조사

전남 지역 학교의 '학교 민주주의 종합지수'가 100점 만점에 80점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223개교에 재직하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총 2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학교문화·학교구조·민주시민교육 실천 등 3개 영역이 포함된 학교 민주주의 종합지수를 평가한 결과, 평점 80.6점이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 구성원이 단위학교의 총체적인 교육활동과 장면을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통해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단 도구로 지난해 전남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개발했다.

영역별로는 학교문화 80.5점, 학교구조 81점, 민주시민교육 실천 80.3점으로 학교구조의 민주주의 지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약간 높았다.

학교 구성원이 평가한 학교 민주주의는 교직원은 85.4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줬고, 학부모 75.8점, 학생 73.1점으로 학생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주주의 종합지수 조사 결과를 전남 전체 학교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평가나 비교가 아닌 단위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 민주주의를 자체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성찰의 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지난 7월 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따라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 종합 지수 평가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년도 취학아동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병행

광주교육청 내년 1월 5~6일

광주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내년 1월5~6일 1·2차로 나눠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학교는 총 153개교(국립 1교, 공립 149교, 사립 3교)이며, 취학 대상자는 2014년에 출생한 적령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5년생 아동, 전년도 취학 유예 아동 등 1만 3580여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절차(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학교 내 접수함 등)에 따라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빙서류), 그 밖에 학교별 요구 서류 등이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 참여를 희망하는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재원증명서를 예비소집 기간에 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일정 및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학교별로 조정되거나 상이할 수 있다"며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지역복지사업' 장관상

광주시 북구가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2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실시됐다.

북구는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분야에서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최우수상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광주시·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을 확보했다. 이중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 분야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 의무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